

# 釜山の 國祭化 方向 (The Internationalization Direction of Pusan) -外國人 投資誘致 活性化 方案-

Won Sik Kang\* and Byung Sung Eu\*\*

\* Department of Shipping management,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Korea

\*\*Korea Automobile,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 1. 서 론

부산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앞에 두고 동서냉전 체제의 해소와 경제의 지역화라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의 여건은 많은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새로운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부산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발전방향에 관한 문제의식과 발상의 전환 없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부산은 한반도 동남권에 위치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연결점이자 관문으로 環太平洋時代의 도래와 함께 地理的條件과 地域經濟 잠재력으로 인해 국제화 시대의 주역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관찰해 볼 때 부산항은 고종13년(1876) 강화도조약에 의해 근대 국제항으로 개항되어 한국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한국 경제성장의 전환기였던 1960년대 개발정책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대외 지향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산업 거점 및 관문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부산이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역공업의 침체 현상 및 서비스산업의 담보로 부산경제가 위축되고 변화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까닭에 부산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또한 서울로의 중추관리 집중과 금융, 정보 집중의 가속화로 인구 4백만의 국제화만 도시가 서울지향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부산이 가지고있던 잠재력과 가능성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에 부산을 국제도시로 부각시키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을 구축하여, 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시대적 발상의 전환과 이에 대한 시민의 국제화 의식이 결집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은 국제화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지역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독자적인 단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화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부산이 대륙의 관문이 되고 태평양 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지리적으로 海運과 空運의 원활한 소통으로 동북아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부산을 국제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발전되어져야 하는가의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산을 국제화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부산의 국제존을 형성할 여건 및 환경조성과 국제적 기능제고를 제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2. 부산 국제화 여건과 환경조성

부산은 천혜의 지정학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국제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부산이 동북아의 국제업무인 경제, 물류, 정보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 경남, 일본의 구주지역, 중국의 大連,天津,上海, 러시아 극동의 Vladivostok등을 포함하는 경제교역 지역의 국제무역을 중추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중핵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국제화와 대외개방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국제간의 자유로운 교통망의 확충과 종합적인

국제업무지대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반면 시민의 국제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정 및 교육의 국제화 등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에 맞는 환경조성을 위하여서는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른 국제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철수하는 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수년간 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지역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감소는 우리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되고 있다. 지난 '86년 16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철수건수는 '87년 '88년 각각 20건, '89년 28건, '90년 36건, '91년 46건, '92년 5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외국인의 대한투자도 지난 '88년 343건에서 '89년 336건, '90년 295건, '91년 286건, '92년 23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를 보면 중국이 876억달러, 태국 304억달러, 말레이시아 247억달러, 대만 91억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겨우 55억달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감소의 현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임금 상승으로 우리나라가 동남아 및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비해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은 이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될 여건조성이 미흡하며 행정력이 없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어느 정도의 우리 부산시민이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며 안내되어 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와 외국인이 마음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 등 외국인들이 지역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쉽게 생활하고, 장사할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투자어로 요인은 복잡한 규제 및 관련법률, 비싼 토지가격과 토지구입이 어렵고, 고임금에 노사분규까지 겹쳐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국기업의 토지취

특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예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 설립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3. 국제화의 기반형성과 기능

부산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매력있는 도시로서 개발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선진국의 전통있는 많은 도시들이 바다,호수,강,숲 및 공원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처럼 부산도 Water-front 개발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쾌적하고 매력있는 새부산을 가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부산은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이며 그 좋은 경관을 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부산항의 절경을 돌아볼 수 있는 최고급의 식당과 최고급의 시설을 갖춘 관광유람선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부산은 변해야 한다. 이제까지 고전적인 도시기능에서 탈피하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새 도시를 구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일 때이다.

부산은 국제화 기반에 유리한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국토개발 정책면에서 소외당하고, 산업구조는 날로 취약해져 뒷걸음치는 한편 지방정부의 국제화 제도 미비 및 지식부족으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은 타도시에 비해 개발해야될 주요지역에 군용시설이 산재해 땅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도시 기능마저 저해하는 형편이다. 군용시설이나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산이 국제화되기 위하여는 국제화 기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첫째, 현 항만기능은 내륙운송체계의 한계로 더 이상 확충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를 둘러싼 서낙동강에 국제물류 및 유통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항만,공항,철도를 건설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국제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기업 자유지대,보세가공 수출단지, 전시장, 견본시장, 선물시장, 도매단지 등 국제화 기능에 필요한 기구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국제무역 정보와 서비스의 형성을 위해 부산 세계무역(PWTC)센타를 설치해야한다. 무역정보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부산 세계무역센타는 복잡한 부산시내를

가로질러 갈 것이 아니라 부산 국제공항에 인접한 신도시에 설립되어 져야한다. 그리고 부산 세계무역센타를 중심으로 은행, 보험, 외환시장, 국제비즈니스 센터, 교육연수원, 호텔 등이 유치되어야 한다. 부산세계무역센타가 설치되면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해 무역정보와 서비스 등 국제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국의 기업, 정보, 기술, 자본, 서비스, 노동 등이 자유롭게 유출입되고 산업구조는 고도화될 것이며, 기술이전의 추진, 자본의 유입, 우수한 서비스 및 노동의 유입으로 기업의 국제화를 가속화시켜 국제도시 및 중추관리기능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셋째, 부산의 국제화전략에 따른 도시계획은 여건과 잠재력에 맞는 현실적이고 개성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100년 앞을 내다본 치밀한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변경,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하여서는 국제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추진 모체인 부산국제화 추진 기획단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 대학, 문화단체, 정당, 사회단체 등을 망라하여 모든 민간 조직체들은 자체 기구 안에 국제화 전담 부서와 책임자를 두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국제화를 위한 특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회의 개최, 국제적 문화 이벤트를 조직하는 등 국제적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화의 기본적인 중추시설들을 재 점검해야 할 것이다. 즉 공항, 항만, 철도, 도로수송 등이 복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국제수준으로 공항이 정비되어야 하며, 부산역의 구포 지역 이전 및 현 부산역까지의 기존 철도는 화물운송 철도만의 잔류 등으로 축소하는 등 대정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고속도로의 확충, 신설 및 산복고속화 도로의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은 지형이 앞은 바다요 뒤는 산인 『背山臨海』형이기 때문에 도시 곳곳마다 크고 작은 산이 버티고 있어 터널을 뚫지 않고서는 전국 최악의 교통난을 사실상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공사중인 터널을 포함한 10개의 터널 외에 16개 터널이 연차적으로 새롭게 뚫리게 되 있으며 2천년대 초는 26개 터널이 관통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국제화전략의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와 국제화에 따른 기금 설치 등은 부산이 당면한 최대의 해결과제로 최고의 지혜와 인적 결집력, 정치적 동원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만 잘 모아서 활용하면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해외로부터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국제화에 대비한 인력확충 및 조달을 위하여 부산시립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좋은 인재를 서울로 뽑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호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 4.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 조성

부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남권 공업벨트를 배후지로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자유 지역은 특정지역에 첨단 고도기술 분야에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므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술 향상 및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에 의해 자본과 경영을 함께 참여하는 투자로서 국내 기업과 합작하는 형태의 합작투자와 외국인 단독투자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부족한 투자 재원의 조달, 선진국 첨단기술의 이전효과, 관련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 유발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기업근무 경험 등으로 유능한 경영 인력을 배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승인 절차 면제 및 간소화, 자유로운 토지취득, 해외금융조달 자유화, 공장 설립의 자유 등의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져야하며 입주 허용 외국첨단기업의 범위는 고선명(HD)TV,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정밀공장기계, 건설광산기계, 정밀금속가공, 석유화학, 공해방지,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등 전문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지역이 마산의 수출자유지역과 다른 점은 수출자유지역이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만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내수판매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비해 외국인 투자촉진지역은 내수가 허용되며 원자재 및 부품 반입규제가 적고, 용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공단 입지에 따른 많은 혜택이 따라야 한다.

부산에서의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은 첫째, 외국기업만이 입주하는 전용공단지역으로 기술개발, 제품생산, 연구개발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금융, 무역, 전시, 직판 등 거래와 유통이 자유로운 대외거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셋째는 숙박, 교류, 화물보관 처리 및 정보제공과 업무관리중추기관 등 국제업무 활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역에는 일정한 다국적 기업과 국내합병 기업도 포함 할 수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우리나라 제 1의 국제 무역항, 동남 경제권의 중핵 도시, 중화학 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남해안 공업지대의 핵심도시, 수출화물 58%, 컨테이너 처리 95%를 자랑하는 도시로서 아시아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실적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육, 해, 공의 복합수송시스템을 구사할

수 있는 국제투자 및 거래의 거점으로서의 전개가 가능하다. 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로 향한 국제적 투자 거래 촉진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공단은 장소, 시설, 행정 및 배후지원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그 기능과 이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개편과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전용지역의 조성이 절실하다. 외국인 투자전용지역 지정은 용지매입, 외자조달의 자유, 세제혜택, 각종규제의 철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부산이 국제화 되어지기 위한 최우선 실행과제는 외국인 투자촉진지역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산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한외국인 단체나 외국 공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세계적 홍보대책 등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결 론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전략방향은 부산을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업무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 선진 외국기술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기업의 국제화에 부응한 새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교역확대를 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산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선진화, 국제화될 수 있는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이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도시를 끼고 있는 강 양쪽이 모두 개발되어 있으나 유독 부산만은 낙동강 동쪽만이 개발되는 불균형 발전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그린벨트 등으로 대부분이 묶여있는 낙동강 서쪽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덕도의 신항만 개발과 자유물류 투자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산공단과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 대비하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대량 운송로 개설을 추진하고 녹산공단 진입 및 가덕도 까지 철도가 개설될 경우 녹산공단과 인근공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인적 교류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부산시역이 좁기 때문에 인근 지대를 편입하여 시역을 확대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해야 하며 가덕도를 국제적인 자유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의 현 여건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답지 않게 서울과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지역 경제의 잠재력을 활성화할 방향이나 전략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국제 항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부산 도시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부산의 산업, 교통,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계획되어졌던 해상 신도시 건설이 유보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추진하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이는 국제화 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다각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 분석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와 지방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발 맞추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적 환경을 충분히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세계 속의 부산으로 발돋움하는 국제도시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며, 행정 및 교육의 국제화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가덕도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산시민의 의식전환과 결속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오영석, 문정구, 김창남, 심의섭, 김태홍, 김호섭, 장원석, 최수영, 고성국, 1994,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나라정책연구회, Vol. 1, No. 2, pp. 40-60. Vol. 3, No. 9, pp. 276-304.
- (2) 이대근, 1993, 세계경제론-글로벌화와 국민경제, 가치사, Vol. 10, No. 1, 2, 3, pp. 318-351.
- (3) 박수이, 1993, 한국무역의 이해, 경성대학교 출판부, Vol. 2, No. 3, pp. 103-116. Vol. 8, No. 1, 2, pp. 369-421.
- (4) 오영석, 강경식, 김일곤, 박수이, 1992, 부산의 글로벌리제이션 방향과 전략 (국제화 심포지엄 보고서), 부산청년회의소, Vol. 2, 3, pp. 30-44, 52-69.
- (5) 강경식, 1992, 부산국제도시화 전략구상,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Vol. 2, 3, 5, 6, pp. 4-22, 31-68.
- (6) 오영석, 1994, 동북아 국제업무거점형성을 위한 부산경제특구 설치방향, 발전과 시스템,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Vol. 3, pp. 26-35.